

한국산 미기록 정수리검정알벌아과 (별목: 검정알벌과)의 보고

최준열, M. A. Kozlov¹, 우건석², 유재기

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농업해충과, ¹러시아과학원 동물연구소,
²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납작먹좀벌상과의 검정알벌과는 곤충이나 다른 절지동물의 알에 기생하는 분류군으로서, 후절 마디의 길이비, 측등판의 유무, 시맥의 형태, 홑눈의 위치 등에 따라 세 아과로 나뉘어진다; 검정알벌아과(Scelioninae), 정수리검정알벌아과(Teleasinae), 측등판검정알벌아과(Telenominae).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한국곤충명집에 등재된 검정알벌아과, 측등판검정알벌아과의 2아과 18종을 비롯해 25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1999년 본 저자들에 의해 9종의 신종이 발표되었다.

정수리검정알벌아과는 한국 미기록 아과로서 검정알벌아과와 형태가 매우 비슷하지만, 뒷홑눈이 정수리 중앙쪽에 위치하고, 후절부 셋째 등판이 가장 길며, 연맥이 연문맥보다 훨씬 길고 후연맥이 없는 특징을 가진다.

한국산 검정알벌과의 분류 연구를 통하여 새로이 확인된 한국 미기록아과, 정수리검정알벌아과의 다음 2종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

Proteleas nefrens Kononova 창살검정알벌(신칭)

Proteleas sulcatus Kozlov 이랑검정알벌(신칭)

*P. nefrens*는 앞날개가 착색되었고, 후절부 넷째 등판의 앞쪽에 주름이 없는 점에서 앞날개가 투명하고, 후절부 넷째 등판의 앞쪽에 주름이 있는 *P. sulcatus*와 쉽게 구분된다.

따라서 한국산 검정알벌과는 처음 기록되는 정수리검정알벌아과를 포함하여 총 3아과의 36종이 된다.